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으뜸 제자 베드로를 향해 매섭게 호통을 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까지 스승을 향해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순식간에 ‘사탄’이자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속내에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 고난을 피하고 존경받는 스승과 더 오래 지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을 단칼에 물리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것들이 왜 하느님께서는 걸림돌이 되고 사탄의 유혹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쓴 자기중심성과 유혹

우리는 흔히 사탄이 흉측한 악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나 선의, 자비, 희생이라는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만 피곤해져”라며 적당히 안주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논리’와 ‘합리성’이라는 양념을 보태어 자신을 감춘 채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 “공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겉으로 정당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옳다’는 집착과 ‘손해 보지 않겠다’는 계산이 숨어 있곤 합니다.**

결국 영적 식별이 빠진 합리성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도구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멈춤도 없고 중립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려 할 때, 문 열린 집에 들어오는 도둑처럼 유혹은 슬그머니 우리 안에 스며들고,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리성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합리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합리성은 지혜가 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합리성은 주님께 걸림돌이 됩니다.

2. 하느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 그리고 식별의 은총

십자가의 신비는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불합리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손실을 줄이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하느님의 논리는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자기를 비워 남을 살리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합리적 정당성’만 주장할 때 일치와 화합은 사라지고 분열만 남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식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참된 식별의 핵심은 “무엇이 정당한가?”를 묻기 전에, “이 선택이 공동체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일치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분열을 가져오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희생과 자비, 사랑과 평화, 겸손과 의탁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유혹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맞아 보일지라도 식별의 은총을 청하며 단호하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탄은 때로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 겸손과 의탁, 희생과 자비의 허울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3.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 - 십자가를 지고 따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신 것은 그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유혹인지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또다시 베드로를 향

한 새로운 부름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식별해야 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그 식별의 과정에서 십자가는 가장 정확한 방향키가 되어줍니다.

내가 가진 논리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익'이나 '내가 옳다는 증명'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공동체를 갈라놓는 '사람의 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확신마저 하느님의 뜻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겸손과 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서 들려오는 “적당히 살라”는 안주의 목소리를 단호히 끊어냅시다. 식별 없는 세상의 논리를 넘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 뒤를 따라나서는 응답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합시다.